

# 시골 노인들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콜 닥터'

함평 해보면 '왕진 의사' 조기창 원장

바쁜 와중에도 복지시설서 난타공연

“우리 원장님 같은 분 아니면 움직이기도 불편한 노인네들이 무슨 힘으로 읍내까지 걸어가 치료받겠어?”

19일 오후 2시에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신촌마을 김철수(81)·정혜남(여·77)씨 부부가 사는 집에 친할가 방과 청진기를 든 조기창(57) 원장이 왕진을 위해 들어섰다. 함평군 해보면에서 조그마한 자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 원장에겐 5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오른손과 다리가 불편한 정 할머니를 돌보던 김 할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청진기로 상태를 살펴본 조 원장은 정 할머니에게 “그렇게 찬바람 쐬지 말라니깐 말을 안들어요. 요새 팔 다리 운동은 하고 지내세요?”라며 ‘꾸지람’을 했다. 평소 건강을 각별하게 챙기라는 자신의 당부를 잊는데 대한 애교 섞인 질책이었다.

하지만 조 원장은 이내 정 할머니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사를 놔준 후, “어르신 천식은 관찮으시냐”라며 김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폈다.

무뚝뚝한 얼굴이지만 금세 환자와 친근하게 말벗이 되어주는 조 원장. 그는 함평군 해보면과 나산면 일대에서 ‘시골 의사’로 통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전화를 받으면 단숨에 왕진가방을 챙긴다.

그는 취미로 배운 사물놀이로 노인들을 찾아가 즉석 공연을 펼치는 ‘괴짜 의사 선생님’으로도 불린다. 매주 한차례 노인복지 시설에 찾아가 난타 공연을 한 것이 벌써 10년째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려는 의도로 사물놀이를 배웠지만, 환자들의 가정사까지 꿰뚫고 있는 ‘가족 주치의’가 됐다.

조선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지난 1990년 함평군 해보면에 병원을 개원했다. 일면식도 없는 그가 해보면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그곳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대학후배가 “여기 좋아요”라며 걸어들어온 전화 한 통이 계기였다. 젊은 나이에 무슨 일이든 해보라며 무작정 병원을 열었다. 그리고 우연히 청진기를 들고 아는 형님의 어머니를 진료해주면서부터 왕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오전 7시부터 찾아와 병원문을 두드리는 어르신들을 치료하고, 왕진 요청이 있으면 시간을 쪼개 환자를 찾았다. 초창기 택시를 타고 동네 곳곳을 다녔던 조 원장은 이제 촌로들의 ‘콜’을 받는 즉시 승용차를 끌고 왕진에 나선다.



19일 오후 조기창(오른쪽) 원장이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에 사는 노부부의 요청으로 왕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처음에는 1주일에 1~2차례, 많을 때는 10여 차례까지 이어졌다. 왕진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그가 병원을 비웠다고 나무라지는 손님도 없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부재 이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냥 기다린다.

20여년 동안 동네 곳곳을 다니다 보니 이제는 집집마다 손가락 숫자에 서부터 자식을 소식까지 훤히 꿰고 있다. 그리고 누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 것까지..

“한반은 매일 술취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좋게만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봤더니, 이해가 되더군요. 큰 아들이 근무중으로 눈을 감았는데, 작은아들까지 같은 병으로 누워 지내니 슬리라도 마시고 싶었던 것이지요.”

요즘 시골에 사람이 없다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1주일에 3~4차례는 왕진을 다닌다. 복지시설에서는 무료로 어르신들의 상태를 봐드리기도 한

다. 연말에는 소박하지만 동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와 쌀을 선물하기도 한다. 그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골의사로 계속 살 생각이다.

“교사가 꿈이었는데, 목수였던 아버지가 의사가 되라고 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깨닫고 살고 있는 셈이지요. 농촌에서 왕진다니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 단지 생각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일 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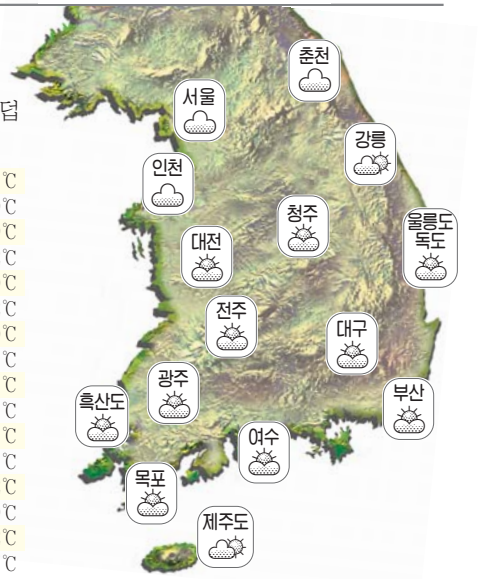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3분 해질 19시 45분 달뜨기 06시 28분 달짐 20시 10분

낮엔 더워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에는 덥겠다.

광주	구름많음	23/31°C
목포	구름많음	20/29°C
여수	구름많음	20/29°C
나주	구름많음	20/32°C
완도	구름많음	23/30°C
구례	구름많음	20/32°C
강진	구름많음	20/30°C
해남	구름많음	20/31°C
장흥	구름많음	20/31°C
순천	구름많음	20/31°C
영광	구름많음	20/31°C
진주	구름많음	23/32°C
전주	구름많음	23/29°C
군산	구름많음	23/32°C
남원	구름많음	23/32°C
홍산도	구름많음	20/27°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경고	보통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면바다	서~북서	0.5~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목포 03:00	08:16
면바다	남동~남	0.5~1.5m	14:58	20:15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여수 09:39	03:36
면바다	동~남동	0.5~1.5m	22:10	15:41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날씨						
최저/최고	23/32	23/31	23/31	23/32	23/32	23/32

## 장마 끝... 다시 찜통더위 시작

19일 오전 서해상으로 북상해 수도권을 관통한 후 이날 오후 소멸한 제7호 태풍 칸논(KHANUN)이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사실상 올해 장마는 끝이 났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태풍에 밀려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겠

다. 이에 따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

면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일사에 의한 지면가열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주말과 휴일인 21~22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최고 32도의 기온이 예상되고 있다. 22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지방에 한차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일본 뇌염모기 경고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경보는 감시 지역(39개 조사지역) 중 1개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 나오고, 전체 모기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발령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6일 저녁부터 18일 새벽 사이에 부산지역에서 채집된 모기 가운데 작은빨간집모기 비중이 5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려 뇌염으로 진행된 고열, 두통, 복통 및 경련, 혼수, 의식장애 등 증세가 나타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전남대 총장직선 폐지 여부 묻는다

평의원회, 26일~8월 2일 찬반 투표 실시 확정

전남대학교 평의원회가 구성원들에게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 심의기구인 전남대 평의원회(교수·교직원 39명)는 이날 오후 5시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직선제 폐지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 대상자는 교수 1250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로 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체결을 각 대학 측에 요구해

왔다. 대다수 국립대가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전남대를 비롯해 전북대·목포대·부산대·경북대 등 5곳만이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그랬듯이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각종 대학 평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하기 때문에 직선제를 고수하는 대학들은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날 평의원회에서는 민주화의 상징이자 대학의 자율·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학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공모제로의 전환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직선제 폐지에 대한 교과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지난 3월 공주대·제주대·충북대·강원대 등은 찬반 투표 끝에 직선제 폐지에 찬성, 직선제 개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5개 대학 가운데 목포·경북·부산대 등 3곳은 찬반 투표를 실시, 직선제 유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 무안공항~삿포로 전세기 뜬다

여름휴가철 맞아 내달 두차례 운항

무안국제공항에 호남권 최초로 일본 북해도(삿포로)를 운항하는 전세기가 취항한다.

1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무안과 일본의 최북단 북해도 대도시인 삿포로간 전세기를 내달 13일과 16일 두 차례 운항할 예정이다. 호남권 일본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

전세기는 대한항공에서 운항하는 것으로 내달 9일과 10일 인천~일본 북해도(삿포로) 구간 정기편(전세기) 운항과 함께 이뤄진다.

이번 북해도 관광객들은 일본 에도 시대 마을을 재현한 테마파크 다테지

다이무라(시대촌), 지류미사키 백조대교, 세계 3대 야경 중의 하나인 하코다테, 영화 ‘러브레터’의 배경으로 유명한 오타루 운하, 삿포로 변화와 오오도리 공원 등지를 돌아볼 예정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일본을 가기 위한 유일한 교통편인 광양해리마저 운항중인 가운데 일본 관광을 위한 유망한 교통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효용이 좋을 경우 정기편으로 상용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 여름 8월 평균기온 22.3°C 겨울에는 눈축제

日本

# 北海道 ↔ 무안공항

새벽출발 저녁도착으로 알찬 스케줄 : 무안출발 : 05:00 / 삿포로 출발 : 22:30

**8월**

- 09일 3박4일 1,390,000~ (인천출국-무안귀국)
- 13일 2박3일 1,290,000~ (무안공항 왕복)
- 16일 3박4일 1,650,000~ (무안공항 왕복)

문의 및 접수 : 호남권 여행사

昭和新山(쇼와신잔)은昭和(일본의 연호)시대에 새롭게 생겨난山? 1944년 6월, 한마디로 어느날 자고일어나 밖을 보니 보리밭과 소나무 숲이던 곳이 산(402m)이 되어 지금도 자라나고 있으며, 현재는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